

구민과 함께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



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이 10월 1일 남구국민체육센터2관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왼쪽 사진은 개청 50주년 기념사를 하는 오은택 남구청장.

오은택 남구청장 개청50주년 기념사

“미래 100년의 도약, 출발점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1975년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에서 남구로 승격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남구는 섬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의 남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0년은 남구가 미래 100년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니다.

먼저, 1994년 동서고가로도 준공과 2001년 부산 지하철 2호선 개통, 2003년 광안대교와 2022년 부산항연계수송도로 개통으로 남구는 부산의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 1998년 정부로부터 8만 3,600평의 백운포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지금의 남구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였고 구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할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세번째,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이기대는 1993년 시민들에게 개방된 이후 2005년 산책로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품 트레킹코스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네번째, 1975년 구 청사로 사용된 대연출장소는 2007년 구민의 염원을 담아 지금의 남구청 신청사로 건립되었고, 2023년에는 남구청 별관도 준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2010년 UN평화 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자유와 평화의 도시브랜드 향상은 물론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시민 한분 한분의 성금으로 평화공원에 있는 위트컴 조형물 건립을 계기로 남구는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더욱 더 발전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역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로 폐쇄된 용호부두는 용호빛발광공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물놀이장으로, 밤이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심공원으로 변화하여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의 모든 변화와 성장은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역대 선배님들 그리고 유

관 기관, 각급 단체가 구민들의 염원에 응답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행정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원동력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행정이 앞에서 시작의 문을 열었다면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으며 결과를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남구가 더욱 든든히 자리할 수 있는 이유는 50년을 함께 해 주신 한분 한분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과 금융이 만나는 1등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BIFC,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강력한 금융,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글로벌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과 맞물려 남구는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심장이자 세계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9년 개교 예정인 금융자사고를 통해 글로벌 지역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으로 청년이 꿈꾸고 머무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행복도시를 열어 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복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라 구축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남구복지재단’설립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말 공식 출범하는 지역문화의 허브, 부산 남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교육 그리고 예술을 연결하여 ‘문화도시 1등 남구’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희망을 품는 희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청년 친화행정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대간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강화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 주거 안정, 문화·여가 지원 등 아이와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활력의 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취임 첫날인 2022년 7월 1일 저는 남구청청나조 발전소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마음 속 결의를 다졌습니다. 차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만났던 골목상인, 어르신, 학부보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남구형 생활밀착정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료 칼잡이 사업, 스마트 횡단 보도 설치, 종량제 봉투값 인하, 야외 생수 냉장고 설치 등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와 남구청 직원 모두는 주민과 직접 마주하며 소통해 왔습니다. 찾아가고, 발로 뛰고, 대화하며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해 왔습니다. 구민들께서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이런 게 바로 “구민을 향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행정은 결국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에도 진심으로 답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남구청 직원 모두는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세계가 찾는 1등 도시 남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일 개청 50주년 기념식 성황 오은택 남구청장 미래 비전 등 제시

남구는 10월 1일 지난 50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남구국민체육센터2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관내 기관장과 각급 단체장, 지역주민 그리고 역대 구민상 수상자와 사랑의 열매 기부자, 고향사랑고액기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남구의 기념비적인 50돌 생일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구민과 함께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 슬로건 아래 50년 성과를 돌아보고 구민과 함께 앞으로 발전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석자 전원이 개청 50주년 기념판을 들고 펼친 퍼포먼스도 장엄함을 연출했다. 이밖에 LED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과 구정연혁 보고, 개청50주년 기념영상 시청, 남구 어린이들이 1시간 가량 진행했다. 특히 공도를 통해 선정된 남구 토박이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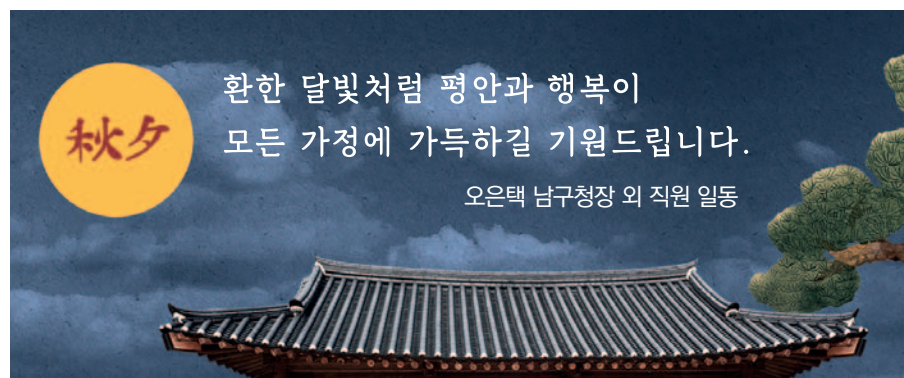


개청 50주년 기념식에 앞서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배롱나무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다.

이 무대에 올라 오은택 남구청장으로 부터 토박이 증서를 수여 받았다.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수 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수로 대표적인 여름 꽃나무인 배롱나무가 식재됐다. 기념식수 행사와 함께 자연식으로 만든 기념 나무표지석 제막행사도 열렸다.

행정지원과 ☎607-4105



개청 50주년 특집

가깝지만 먼 섬, 오륙도	7p
민선8기 역점 사업들	8p
50년 구정 50대 뉴스	9p
남구청 생활밀착사업	10p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청 50주년 기념 부산남구신문 16면 발행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남구 경기 일정 소개 11면